

종교교육학연구 제20권, pp.167~184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5. 6

수행과정 공유를 통한 종교 간의 대화에 관한 연구

이 재 영
(선문대학교)

《요약》

오늘의 종교교육의 문제점은 학교형 교육 패러다임(paradigm)을 따르는 것이다. 종교교육 목적은 단순히 이해하여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행동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종교교육에서는 학교형 교육의 패러다임을 지양하고 경험적, 관계적, 성찰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종교교육을 위하여 행동하며 성찰하고 성찰하며 행동하는 프락시스(praxis)적 종교교육이 요구된다. 이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은 종교적 수행이다. 종교적 수행의 과정에는 이타의 단계, 이행의 단계, 재가입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종교 간의 수행과정 가운데 상호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있지만 대부분의 종교는 이 과정중의 한 과정을 그들의 수행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행과정의 목적을 보편적 인격형성과 신앙공동체 형성을 위한 것으로 본다면 종교 간에 수행과정을 공유할 수 있다고 보며, 수행과정의 공유를 통하여 종교 간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가정아래 연구되었다.

핵심 주제어: 수행, 학교형-교육 패러다임, 종교의식의 세 단계-이타의 단계, 이행의 단계, 재가입의 단계, 수행과정의 공유

I. 서론

교육은 인간을 가르치는 일이다. 결국 한 인간을 형성하는 행위임을 말한다. 그러나 어떤 인간상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냐?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론(異論) 있다. 학교교육과 종교교육의 차이는 어떤 인간상을 목표로 한 교육이냐 하는 데

서 그 차별성이 있다.

학교교육에서는 “민주시민” 양성이나 “인격자” 양성 등 포괄적이고 통합적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지만 종교교육에서는 종교교육을 통해 도달해야 할 구체적인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제자, 유가(儒家)에서는 성인(聖人), 불가(佛家)에서는 부처(佛), 도가(道家)에서는 진인(真人) 등의 인간상을 추구한다. 따라서 종교교육에서 이 인간상에 도달시키려는 의도적 노력이 교육이며 피교육자 입장에서 이 인간상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이 공부인 것이다.

종교교육은 각 종교에서 제시하는 인간상을 닮게 하게 위한 의도적 과정이다. 즉 종교교육의 목표는 제시된 인간상을 닮는 것이며, 교육의 과정은 그 인간상을 닮게 하는 의도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종교는 제시된 인간상을 닮아가는 교육의 방법을 제시한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닮기 위하여 제자훈련, 영성훈련 등의 교육의 목표와 과정을 제시한다. 불교의 교육의 목표도 부처를 닮기 위한 교육이며 부처가 되기 위한 교육이다. 부처를 닮고, 부처가 되기 위하여 석가모니가 행하였던 삶을 방식을 따르려고 한다. 이 삶의 방식을 따르기 위하여 같고 닮음이라는 의미에서 교육을 수양(修養)이라고 한다. 수양은 교육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교육적 행위를 수행(修行)이라고 한다.

각 종교의 교육 혹은 수행 방법이 서로 다르거나 수행방법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지향하는 인간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기독교적 인간상, 불교는 불교적 인간상을 제시하기 때문에 종교 간의 수행 방법이 달라진다. 즉 보편적 인간상을 교육의 목표로 하지 않고 교인(敎人)을 양성하는 종교교육 혹은 전도자를 만드는 종교교육이 될 때 교육의 방법으로서의 수행과정은 공유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종교교육의 목표를 “~적(的)” 인간상에 두지 않고 보편적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이 되는 인격자 교육에 목표를 둔다면 수행 방법을 공유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본 논문을 진술하고자 한다. 즉 교육의 목표를 인격자 교육에 두고 합리성과 객관성을 가진 도덕성, 이타적 사회성, 애타적 관계성을 갖춘 인격자 양성의 교육 방법을 모색한다면 각 종교 간에 수행 방법을 공유할 수 있다고 본다.

각 종교의 종교교육의 목표가 인격자 양성이라는 교육의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인격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교육의 방법도 종교 간에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유(儒)·불(佛)·도(道)가 전통의 동양종교 수행에 타종교인들이 참여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격자 양성을 목표로 한 종교교육의 목표와 교육과정으로써

수행의 과정을 공유한다면 종교 간의 일치와 대화 운동에 공헌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종교 간의 수행과정의 차이와 접촉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종교교육에서 수행의 필요성

지금까지 일반 교육에서나 종교 교육에서 주지주의(主知主義)적 교육 즉 주입식 교육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대부분의 학교교육이 주입식 교육으로 이루어지므로 주입식 교육을 학교형 교육이라고 부른다.¹⁾ 그리고 종교교육에서도 학교형 교육의 패러다임(paradigm)이 종교교육의 모델로 받아들여왔다.

종교교육은 그 목적에 있어서 학교 교육과는 다르다. 학교 교육은 현대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한 지식인 양성과 기술인 양성교육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종교교육의 목적은 각 종교에서 바라는 바람직한 인간상이다. 따라서 종교교육의 목적과 방법이 학교형 교육의 패러다임에 맞출 수가 없다.

각 종교에서 종교교육의 목적을 진술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종교교육의 목적은 인간화(人間化)를 위한 교육이다. 종교교육은 종교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 종교에서 이상형으로 살고 있는 인간화가 종교교육의 지향점이 되어야 함을 말한다.

종교교육은 과정은 한 인간상을 목표로 해서 이해의 과정, 결단의 과정, 믿음의 과정을 거쳐 행함을 목표로 한다. 학교 교육에서는 이해를 통한 지식의 축적이 그 목적이다. 그러나 종교교육은 지식의 양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단순히 앎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행동하는 신앙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종교교육은 행함을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종교교육에서는 지금까지 학교형 교육에서 이루어져 왔던 것처럼 지식의 습득을 통한 인식의 확장이 아니라 “관계적, 경험적, 성찰적인 과정”에서 인식이 확장된다. 이러한 인식론은 본래 동양 종교에서의 인식론이었다. 물론 동양 종교에서의 진리에 대한 지적 탐구도 중요시 하였지만 이(理)를 실현하는 마음 수양 및 실천 공부를 더 강조하였다. 불가(佛家)와 도가(道家)로 대표되는 동양의 주요 교육 사상은 모두 배움 혹은 수양 위주의 사유를 바탕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우주와 자신의 본성을 각성하고 이를 삶 속에서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배우고 수양해야 하는가가 교육의 주된 관심사이다. 이처럼 동양의 유·불·선의 전통종교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을 축적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1) John H. Westerhoff III.,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New York: The Seabury Press) , 1976. p.6.

수양을 통하여 삶에 이르게 된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종교교육에서 수양의 과정보다는 전통적인 학교형 교육의 패러다임이 종교교육의 주요한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리나 종교적 내용을 주술적으로 암기하는 교육이 종교교육의 전부로 이해되고 있다. 동양의 전통 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수행은 성직자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행은 일반 신도의 삶의 자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독교 종교교육에서는 수행의 방법이 없다. 대부분의 종교교육이 말로 이루어지는 강의나 설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학교-교육형 교육의 방법에 의하고 있다. 학교 교육형-교육은 지식의 전달이지 깨달음의 교육은 아니다. 종교교육에서 인식한다는 깨달음을 의미한다. 종교적 깨달음은 형이상학적 이론 전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험 속에서 가능하다. 그것은 종교에서 가르치는 주제들이 초월적이고 무형적이며 내적인 세계를 다루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를 관념론적인 설명으로 깨달음이 올 수 없기 때문이다.

종교적 삶이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삶에 이르는 세 가지 방법 - 데오리아(theoria), 프락시스(praxis), 포이에시스(poiesis) - 중 프락시스적인 삶이다. 관상적이고 비참여적인 데오리아적 삶이 아니라 행동과 성찰에 의한 깨달음이다. 성찰적으로 수행된 행동이요, 수행된 것에 대한 성찰로서 이루어지는 깨달음이다.²⁾

III. 종교교육의 과정으로서 수행과정

종교교육학자 웨스터호프(John H. Westerhoff III)는 종교의식(宗教儀式)에는 세 가지의 국면이 있다고 하였다. 이탈의 단계-이행의 단계-재가입의 단계 등 세 국면이다.³⁾ 이 세 국면은 종교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행의 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티벳 불교의 람림(lam Rim) 명상에서도 수행의 단계를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로 나누고 있다. 이 3단계의 수행과정이 웨스터 호프가 말한 종교의식의 세 단계와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 하사도는 이승에서 이탈하여 천신에 다시 태어나기 위한 수행단계다. 중사도는 업과 미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행단계이며 상사도는 대자비심을 일으켜 중생을 구원하는 단계를 말하고 있다.⁴⁾

2) Thomas H. Groome, op.cit., p.146.

3) John H. Westerhoff III., op.cit., p.111.

4) Dalai Lama, *The Path to Enlightenment*, 진우기, 신진옥 역, 《깨달음의 길》 서울:

통일교 교리서 원리강론에서도 인간의 신앙성장 단계를 율법적 신앙단계, 신의적(信義的) 신앙단계, 시의적(侍義的) 신앙단계로 구분한다. 율법적 신앙단계는 계율에 의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단계이며, 신의적 신앙단계는 책임과 자율에 의한 신앙단계이고, 시의적 신앙단계는 신성(神性)을 닮아 사랑의 의지가 본성으로 작용하는 단계이다.⁵⁾

각 종교에서 행하는 수행의 과정을 위와 같이 세 범주(category)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을 신앙의 발달단계로 이해할 수 있으며 수행의 과정도 이 세 단계 과정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진다.

1. 이탈 과정으로서의 수행과정

이탈의 과정은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지금까지 지니고 있었던 역할이나 신분으로부터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탈피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은 종교적 회심의 과정을 말한다. 지금까지의 삶의 자리를 바꾸어 새로운 삶의 자리로 전환을 다짐하고 선포하는 의식이며 자신 삶을 부정하고 새로운 인간상으로 출발의 의식이다.

대부분의 종교는 입교식을 갖는다. 이 입교식에서는 대부분 새로운 공동체 구성원이 되기 전 과거의 삶을 부정하는 의식을 행한다. 기독교에서는 자기를 부정하고 기독교적 삶을 출발하는 의식이 세례식이라 할 수 있다.

불교에서도 가르치는 인간상으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속세와 인연된 자신의 삶을 부정해야함을 가르치고 있다. 불교에서 승려에 입문하면서 행하는 수계식은 속세와의 인연을 끊는 의식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기독교와 동양종교는 공통적으로 자아 부정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 예수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⁶⁾고 자기 부정을 촉구하였다.

불교에서도 부처는 “색(色)은 무상(無常)이다. 무상이면 곧 고(苦)다 고면 곧 고아다. 무아(無我)이면 곧 이는 아소(我所)가 아니며 이는 아(俄)가 아니며 아체(我體)가 아니다.”라고 무아사상을 주장하였다. 즉 자기 부정을 통하여 실체는 나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기독교 신앙인에게 자아 부정에 대한 교리는 절대자와의 관계를 위하여 지켜야 할 요건이다. 자아부정은 신앙인에게 제 1의 계율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부디스트웻닷컴, pp.109-112.

5)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편, 《원리강론》 서울: 성화사 1994, 190-193쪽

6) 대한 성서공회 편, 《성경전서》 마태복음 16장 24절.

교리에 의하면 인간은 창조 후 창조주가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아 비존재로 전락하였다. 궁극적 존재를 기반으로 한 인간이 될 때만이 존재가 가능한데 인간은 신을 버리고 자기중심적 존재가 된 것이다. 자기중심적 존재로 떨어진 인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교만 즉 자기를 높이는 존재다. 따라서 이러한 비존재로 전락한 자기중심적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할 때만이 새로운 존재가 된다.

불교의 자아 부정은 무상(無常)의 사상에서 연유되었다. 인간의 존재도 물질적 존재 즉 색(色)이기 때문에 찰나에 지나가는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을 아소(我所)가 자아(自我)다, 본질이다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 고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다. 현재의 자기가 '나'라고 하는 생각에서 기인되는 나쁜 경향의 나쁜 마음의 작용으로 아치(我痴), 아견(我見), 아만(我慢), 아애(我愛) 등이 있다.

종교에서 참된 자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아를 부정해야 한다는 역설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다. 부정을 통한 긍정의 논리 즉 변증법적 인식의 논리이다. 변증법적 부정에 의하여 비존재 혹은 모순 된 자아를 부정하고 자아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도달한다. 자아의 부정에 의해 기독교에서는 신에 의존 된 자아로서의 인식, 불교에서는 무상(無常), 무아(無我)로서의 자아를 긍정하게 된다.

기독교와 불교에서의 자아 부정을 통한 새로운 자아에 대한 실체가 같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자아를 부정하게 될 때 진정한 자아의 본질과 실체를 알 수 있고 신앙인이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자유 혹은 해탈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탈을 위한 수행과정은 수행의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 이 단계의 수행은 마음을 비우고 회심(回心)을 통한 각성 혹은 진정한 자아에 대한 깨달음을 위한 수행이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 깨달음을 위해 자력에 의한 수행보다는 앞서 깨달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종교적 지식의 학습과 생활을 위한 훈련이 필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 즉 율법적 단계로 계율을 지키는 삶을 통하여 새로운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2. 이행 과정으로서의 수행과정

이행의 과정은 이미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지위, 역할, 신분을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서 보통 훈련 또는 고행의 과정을 통하여 심신을 연단하는 과정이다. 즉 종교적 삶의 적응단계로 자아에 대한 새로운 인식하에 자아와 사회에 대한 책임적 존재가 되는 단계이다.

불교의 수행 방법 중 좌선은 도(道)의 생활을 이끌어 가는 수행법으로 가장 일반화 된 수행과정이다. 좌선은 정신 통일, 내적 평온과 영혼의 안정을 갈망하는 종교인들에게 일반화 되어 가고 있다. 오늘날 불교에 배타적이었던 기독교인들에게도 더 깊은 기도를 위하여 좌선을 행하는 성직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무슬림은 하루 다섯 번씩의 기도, 라마단의 달에 행하는 단식, 메카순례 등 의 수행과정을 통해 경건성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귀속감을 고양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종교가 금식, 금욕, 고행 등을 강조하는 것은 자아 부정과 승화된 삶을 위한 수행 과정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궁극적 존재인 신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인간은 비존재인데 비존재인 인간의 의지와 욕망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과 사회를 파괴하는 삶이 된다. 따라서 비존재에서 존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비존재인 나를 부정해야 하며 이 부정을 위해 비존재가 지향하는 것을 단절해야 한다.

예수의 말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 하리라?”라고 하였다. 십자가란 기독교에서 고난을 상징한다. 고난의 길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수의 뜻과 거리가 멀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베드로 서신 4장에 보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 들은 또한 그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 할지어다” 라고 하였다. 고난은 신앙인의 성숙을 위해 필수적 과정임을 기독교는 강조하고 있다.

기독교의 교리에 의하면 인간은 영과 육신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영은 선의 실체가 지배하고 육신은 악의 실체가 지배한다고 본다. 기독교의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고행을 통해 육신을 치는 것은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악의 세력을 치는 것이다. 악의 세력이 지배하는 육신을 치게 될 때 영적 삶의 성장과 완성을 이룰 수 있다.

기독교의 이러한 금욕주의는 물론 교리에 근거하고 있지만 고대 헬라 사상의 금욕주의 경향의 영향과 인도의 종교, 그리고 애굽인의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기독교의 금욕주의에 따른 고행은 그 출발에서부터 타종교와 접촉점을 가지고 있었다.

기독교의 고행을 통한 수행은 기독교가 국가 종교가 되어 제도화되고 세속화되기 시작한 3세기 중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때부터 기독교 수도원이 태동하게 되었고 수도원의 인물 들은 명상, 금욕, 금식 등 절제 생활을 삶의 양식으로 하며 고행의 길을 갔다. 기독교 수도자들 가운데는 인도의 요가 수행자처럼 40일 금식, 금식과 불면의 명상, 등 초인적인 능력과 인내로 수행을 하였다.

7) 《성경전서》 마태복음 10장 38절.

불교의 가르침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경지가 열반(涅槃)이다. 열반의 세계는 “무릇 탐욕의 소멸, 노여움의 소멸, 어리석음이 소멸” 된 상태다. 그러나 인간이 삼법인(無常, 無我, 苦)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실체가 아닌 존재에 집착하고 탐욕에 빠져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열반(涅槃)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집착과 탐욕을 버려야 한다. 집착과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는 육체적 쾌락, 물질적 욕망, 권력의 욕구를 버려야 한다. 이러한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존재의 실상을 깨달아야 한다. 이 깨달음을 위해서 불교에서는 명상수행을 하고 있다. 명상수행이란 육체적 욕구를 다스리지 않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행에는 식욕, 정욕, 수면욕, 탐욕, 등을 다스리는 고행이 따른다.

고행이 따르는 수행이 배제된 종교는 진정한 종교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고행을 통한 수행 교육보다는 세상과 타협하여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가르치고 있다. 진정한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부활의 영광을 가르치기 전에 수행을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가르치고 체험하게 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불교의 상(像)은 육체적 쾌락과 단절하고 고고하게 수행하는 수행자가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다. 그러나 오늘날 그 수행의 모습 보다 욕망으로 차있는 마음이나 위무하고 복이나 빌어주는 되어서는 안 된다.

종교는 수행방법을 공유하고 전파하여 현대인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욕망과 이기심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3. 재가입의 과정으로서의 수행과정

재가입의 단계는 주체적이고 통합적인 신앙인을 위한 수행과정이다. 신앙발달의 6단계를 말한 제임스 파울러에 의하면 이 단계에 이른 신앙인을 보편적 신앙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이 수행 과정에 이른 사람은 과거 신앙의 위탁의 양식들과 의미구성의 방법들을 재수용하는 단계에 이른 사람이다. 이 단계에서는 진리에 대한 더 이상의 모호성과 애매성이 없이 진리에 확신을 가지며 진리대로 삶의 의미를 파악하며 실천하려고 하는 단계이다.⁸⁾

각 종교는 이 단계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 것을 요구하며 진리를 확산하는데 동참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유교에서는 인을,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베푸는 것을 신앙의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다. 이슬람은 남에게 자선을 베푸는 자카타(Zakat)가 있다.

물론 이 전의 수행과정에서도 자비, 사랑, 자선을 베풀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8) James W. Fowler, *Stage of Faith*, New York: Harper Collins, 1981, pp. 201-202.

이 재가입의 단계에 이른 사람에게는 이러한 것이 더 이상의 책임과 의무가 아니며 삶 자체인 것이다. 그들의 삶 자체가 진리를 드러내는 삶인 것이다. 이 단계에 이른 사람을 불교에서는 부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유교에서는 군자라고 일컫는다.

모든 종교는 그 발생의 근원에서부터 이타적인 삶을 창도(創道)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유교는 인(仁), 불교는 자비, 기독교는 사랑을 덕목으로 창도의 이념으로 삼았다. ‘인’ ‘자비’ ‘사랑’은 관계적 언어로 상대를 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기독교의 핵심적 가르침은 사랑이다.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 사상은 이타적인 삶이다. 기독교 성경의 주제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의 황금률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⁹⁾이다. 기독교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였다. 행함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다. 따라서 기독교인에게는 인류를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 수행이 자체이다.

불교에서 대승불교의 수행은 이타생활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물론 수행과정으로 선을 강조하고 있으나 선은 무아(無我)로써 이타행(利他行)을 실천하는 지혜와 자비를 체험하기 위한 것이다.¹⁰⁾

대승불교에서는 선을 통하여 심즉시불(心卽是佛)이나 실유불성(悉有佛性)을 자기의 것으로 하여 그것을 인격화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격화는 현실적인 삶을 통해서 해탈이라는 이상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승불교의 오십이위(五十二位) 수행과정에서 묘각에 이르기 위해서는 십행(十行)이나 십회양(十廻嚮)을 수행해야 하는데 중생들을 기쁘게 하고 자기가 닦은 공덕을 중생들에게 베푸는 과정을 거쳐야 묘각(妙覺)에 이른다는 것이다.¹¹⁾

각 종교 간에 교리가 다르고 실천의 과정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이타 생활을 신앙인의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으며 실천의 덕목으로 삼고 있다. 그것은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며 사회적 존재라는 공통된 인간이해에서 비롯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상대적 존재인 것이다. 타를 부정하면 내가 부정되고 타를 긍정하면 내가 긍정되는 것이다.

이타생활을 수행의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종교 간에 수행과정으로서 이타생활을 함께 계도하고 함께 실천하게 될 때 종교 간에 만남과 대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9) 《성경전서》 마태복음 22장 39절.

10) 정태혁, 《명상의 세계》, 서울: 정신세계사, 1999, 85쪽.

11) 같은 책.

IV. 종교 간의 수행과정의 차이와 접촉점

1. 수행 목표의 차이

각 종교의 수행의 방법은 그 종교의 교리 혹은 진리를 표현하고 진리를 체휼하기 위한 신앙의 양식(樣式)이라 할 수 있다. 교리 혹은 진리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수행의 과정도 서로 다르거나 상충될 수 있다.

특히 동양의 전통 종교와 기독교는 그 교리의 차이 때문에 수행과정을 공유하기 어려움이 있다. 동양종교와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신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 동양 전통종교는 상대주의 입장을 취한다는 점이다.¹²⁾ 그러나 기독교의 입장은 절대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신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만물에 대해서 최고의 유일한 존재가 된다. 신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인류를 주관하는 주관자의 위치에 있다. 따라서 신앙이란 절대 의존(絕對依存)의 감정이고 인간은 신에게 절대 의존하게 될 때 인격의 완성이 가능하다.

동양종교의 수행의 방법인 선(禪)이나 요가 등은 그 수행의 목적이 존재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아 해탈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명상인 기도는 “사념적 명상법”이다. 즉 어떤 생각이나 대상을 쫓는 명상이다. 신을 생각하며 신에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을 고양시키는 것이다. 즉 신에게 자신이 묶이게 될 때 진정한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것이다.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자유로운 인간이 되기 위함이다. 그러나 동양종교에서 얻고자 하는 자유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자유의 의미에 차이가 있다. 동양종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라면, 기독교의 자유는 ~을 위한 자유 즉 신을 위한 자유이다.

이러한 신앙에 대한 본질적인 차이 때문에 수행의 목적은 상반될 수밖에 없다. 동양의 전통종교의 수행은 신을 포함한 일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기 위한 과정이고 “기독교 신앙은 인간 자유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 신앙의 열매는 현재 그리고 장래에 자유와 더불어, 자유 속에서, 자유를 위해 사는 것이다.”¹³⁾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기독교는 자유를 얻기 위해 절대 타자인 신에게 자신의 속박시키는 수행인 것이다.

동양의 전통종교나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인간의 자유를 유한 것이며 수행과정이란 자유를 위한 여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양종교의 수행은 자유를 유

12) Venerable Ajahan Chah, 〈마음 길들이기〉, 김용호역, 《새불교 원초불교》 서울 : 교묘한 소리, 1994, 105쪽.

13) Thomas H. Groome, op. cit. p.82.

하여 신을 포함한 일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성취하기 위한 수행이다. 불교의 선이나 요가 등은 이 자유를 위해 속박의 인연을 끊는 것이고 마음을 비우기 위한 수양이 된다. 그러나 기독교는 끊임없이 신을 향한 자신의 의지를 키워 그 신에 대한 의식을 내안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수행 방법인묵상이요 기도이다.

2. 기독교와 불교 수행의 접촉점

기독교 특히 개신교는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라는 명제 아래 교회사역의 핵심은 말씀이다. 따라서 기독교는 말씀만 있고 수행이 없는 종교라는 말을 듣게 된다. 기독교의 궁극적 목적은 신과의 합일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안에 있다.”¹⁴⁾고 한 예수의 말씀처럼 기도는 나와 신과의 합일을 위한 수행과정이다. 기독교의 기도는 자신을 비우고 신의 은총을 기원하고 신의 가르침을 받기 위함이다. 따라서 자기를 중심한 욕망과 이기심을 버리고 마음을 집중하지 않고는 기도예 정진할 수가 없다.

기도는 초자연적인 신을 향하기 때문에 자연적 과정을 통한 자신의 내면세계로 향한 불교의 선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보적 신관(神觀)인 내재적(內在的) 신관의 관점으로 신을 인식한다면 기독교의 기도와 불교의 선(禪)과는 접촉점을 갖는다. 신은 초월적 타자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안에 그리고 역사 안에 살아계신 신으로 이해한다면 불교 수행의 선(禪)을 내 자아 안에 존재하는 그리고 자연과 역사 안에 존재하는 신을 자각하는 수행으로 유용할 것이다.

기독교 성경에는 자아 안에 내재하는 신을 설명하고 있다. 예수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고 했으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¹⁵⁾라고 했다. 성서에서는 이토록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할 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다.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기독교의 신앙의 생활의 핵심인 기도는 마음을 비우고 신을 향한 집중이라는 점에서 선(禪)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기도와 선은 깨달음을 목표로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기도는 신의 은총과 계시에 대한 깨달음이 목표요, 선은 자아에 대한 깨달음이 목표이다. 깨달음의 목표는 다르지만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수단으로 선의 수행과정은 기독교

14) 《성경전서》 요한 복음 14장 20절.

15) 《성경전서》 마태복음 5장 8절.

신앙에 유용할 것이다.

V. 수행과정을 통한 종교 간의 대화

지금까지의 고찰을 통해 어떤 종교의 수행과정이란 그 종교에서 주창하는 사상과 교의에 대한 내면화와 의식화를 위한 하나의 교육과정(敎育過程)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종교의 수행의 목표는 같을 수 없다. 그러나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인간화 즉 인격교육에 있다고 한다면 각 종교가 표방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수행과정을 하나의 교육의 방법으로 받아드릴 수 있다고 본다.

1. 수행목표로서의 인격자 교육

각 종교가 그들의 종교교육의 목적을 그 교단을 창시한 창시자의 인격을 닮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개 교회에서 실시하는 종교교육의 내용을 보면 진정한 인격자의 교육이라기보다는 교단의 교리교육이나 교인을 만드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의 교회교육의 내용을 보면 소위 “제자화”를 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교회 교인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도자를 기르기 위해서”라는 목표 아래 종교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기독교 제자훈련을 위한 한 책의 내용을 보면 기독교에서 양육하고자 하는 제자의 정의를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전도의 열매를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기독교에서 기르하고자 하는 한 인간상이 전도인 이라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종교교육의 목표는 인격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계학은 “사람이 사람인 것은 그의 사람다움에 있으므로 사람다움은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일 수밖에 없다. 사람이 사람다움을 구유(具有)하고 있을 때 그것을 인격이라고 한다. 따라서 인격은 교육의 궁극적이 목표일 수밖에 없다.”¹⁶⁾라고 하였다.

종교교육도 결국은 인간의 완성에 있으므로 그 목표를 인격을 함양하는데 두어야 한다. 물론 각 종교에서 실시하는 종교교육이 인격 교육이라고 주장하겠지만 그 인격교육의 기준이 보편적 가치관을 근거로 한 인격교육이나 하는 문제

16) 같은 책, 37-38쪽.

를 물어야 한다.

이계학은 “인격의 실체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체제이며, 한 개인의 가치관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신념체제와 가치관은 지적(知的)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것이고, 정적(情的)으로는 이타적이며 애타적(愛他的)인 것이며, 의적(意的)으로는 타율적인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기준에서 보면 오늘날 각 종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격교육은 인격교육과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불교의 종교교육이 인격교육을 위해서 결여된 점이라면 개인과 공동체의 안에서의 균형 있는 삶일 것이다. 한 사람의 신념체제나 가치체제는 인간의 관계 안에서 그 객관성과 정당성이 드러날 수 있다. 따라서 인격을 위한 종교교육의 과정은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불교 교리의 근원적 깨달음인 무상과 무아를 깨닫기 위한 자기 수양이 어떻게 공동체적인 삶과 균형을 이루는 삶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불교 종교교육의 과제일 것이다.

2. 인격 교육의 방법으로 수행과정

교육이란 결국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인격자를 만드는 일이다. 인격자를 만드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게 될 때 각 종교의 수행 방법을 종교교육의 방법으로 종교 간에 공유할 수 있다고 본다.

각 교단이 종교교육을 한 종교적 인간을 만드는 유일한 교육의 방법이고 다른 교단의 종교교육과 경쟁적 방법의 하나라고 보면 종교교육의 방법을 공유할 수 없다. 종교교육은 인격자를 형성하는 하나의 보충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내 교단의 종교교육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고 전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인격 교육의 한 방법이고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어떤 종교도 그 종교의 교리와 사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종교의식(宗教儀式)을 가지고 있다. 예배에서 표현되는 종교의식이나 수행과정도 종교적 내용을 표현하기 형식이다. 형식은 종교의 내용을 내면화(內面化) 혹은 의식화(意識化)를 위한 과정이다. 사람들은 종교적 형식에 참여하므로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나 사상을 이해하며 내면화 시킨다. 형식은 종교의 내용을 자각하게 하는 상징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각 종교는 자기 교단의 교리나 사상을 사람들에게 의식화시키기 위하여 타종교의 형식을 채택할 수 있다. 형식에 자기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힌두교 전통에서 비롯된 사마타 명상은 기독교 신앙을 위해 유익한 명상법이라고 본다. 한 주제에 집중하여 명상을 하므로 신앙의 주체에 대한 의식

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또한 많은 종교에서 수행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만트라도 기독교 신앙심을 고양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행법이라고 본다. 하나의 종교적 주제를 반복하여 암송하므로 마음의 집중과 교리와 사상을 내면화 시키는 방법이 만트라이다.

기독교는 인격 수행을 위한 어떤 명상법이나 수행법이 타 종교에 비해 부족하다. 그러나 기독교는 타 종교에 비해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 정신을 강조하며 실천한다. 기독교인에게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 활동이 수행 자체이다. 그들은 이 활동을 통하여 자기 부정과 영적 정화(淨化)의 삶을 체험하는 것이다.

사랑과 봉사는 기독교 교리를 실천하는 일이지만 이것을 행하는 신도들에게는 신앙심을 고양시키는 하나의 수행과정이다. 이 들은 이 수행과정을 통하여 마음을 정화하고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버리며 순결한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러나 기독교의 이러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는 자신의 종교가 유일한 구원의 종교로 알고 타 종교에 대하여 배타적이다. 이것은 예수의 진정한 가르침이 아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가 되기 위하여 먼저 기독교인 자신의 내면에 세계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위해 타종교의 수행과정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불교의 수행과정이 개인의 내면세계를 통찰하고 마음의 세계를 다스리는 수행으로서 타 종교의 수행과정에 비해 앞서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인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인격자 양성을 위한 수행의 방법으로서 타 종교의 수행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

3. 공동체적 삶을 위한 수행과정

신앙이란 인식하는 일, 사는 일, 행동하는 일을 포함하는 하나의 행동양식이다¹⁷⁾. 인식, 삶, 행동 이 세 가지 면에서 변화를 가져 올 때 신앙이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명상이나 기도 등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다고 하여 곧 신앙이 성장했다고 할 수 없다. 신앙 자체가 우리의 행위에 관한 사항이고 하나의 활동인 것이기 때문에 신앙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한 행동의 결과로써 생기며, 타인과 함께 행하는 활동의 통해서 변화되고 발전한다.

인격형성은 사회화(社會化) 과정을 배제하고 자력의 수행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인격형성을 위한 핵심적 의식인 자기의식은 우리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사람은 자기의식에 의하여 행동하고 의미를 산출하는 우리의 자아개념, 가치체계, 세계관은 사회와 과정에 의하여 형태 지어지는 것이

17) John H. Westerhoff III., op. cit., p.89.

다. 사회공동체와 개인의 자아의식과의 관계는 변증법적 관계가 있다. 자아의식은 사회에 에토스(ethos)를 형성하며 사회발전을 촉진시킨다. 그리고 사회의 에토스는 인간의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격형성을 위한 수행이 개인의 깨달음에 목적을 두지 않고 그 깨달음이 신앙공동체 성장을 위해 영향을 주고 신앙공동체 안에서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수행과정으로 발전해야 한다.

불교의 수행과정은 대부분 자력수행의 방법이며 자신의 깨달음과 자신의 극락세계의 왕생을 위하여 수행을 한다.¹⁸⁾ 그러나 자기만족만을 위한 깨달음과 열반을 추구하는 수행이라면 이기심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태국의 스님 아잔차는 불교의 명상수행에서 빠질 수 있는 위험을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만일 명상 수행을 한다는 명분아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기심과 아만으로 사방 벽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숨어버린다면 명상은 한낱 자기중심적 성향을 가리는 가면에 불과하므로 분명히 그것은 현실도피이며 바람직하지 못하다.

진정한 수행은 중생을 교화(敎化)하고 구원하는 이타행을 수행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불교인으로서 인격을 수행하고 사회를 정화하는 수행을 하려면 개인의 깨달음을 중시하는 수행과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삶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행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기독교에서는 “온 천하를 얻고 자신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는 기독교 성서의 가르침처럼 공동체 안에서 모이는 관계를 중심한 선교와 친교 활동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인격을 연마하는 자력 수행의 과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6. 맺는 말

오늘 날 이데올로기에 의한 냉전의 시대는 종식되었다. 그러나 인류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평화세계를 이루 살아가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장벽이 많다. 그 중에서도 종교 간의 갈등은 인류가 넘어야 할 마지막 장벽이 될 것이다.

중동에서 유대교와 이슬람의 갈등, 인도와 파키스탄의 힌두교와 이슬람의 분

18) 황성기, 《불교학 개론》, 서울: 아름다운 세상, 1999, 225-227쪽,

쟁, 중국과 티베트(티베트 불교 세력)와의 분쟁, 기독교와 이슬람간의 갈등 등, 지금 전쟁 중이거나 휴화산으로 멈추어 있는 갈등 지역들이다.

이러한 종교들이 화합하는 길은 여러 가지로 모색될 수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각 종교에서 수양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방법들을 서로 공유하므로 종교 간에 화해와 일치가 가능하다는 가정 아래 연구되었다.

수행 방법은 하나의 교육 방법이기 때문에 수행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목표가 같은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을 갖춘 인격자에 종교교육의 목적을 설정 한다고 한다면 수행 방법을 공유할 수 있다고 본다.

기독교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자력 수행에 의하여 신을 만나고 신의 계시를 깨닫는 것이 부족하다. 따라서 불교의 선이나 인도의 요가 명상 등을 수행과정으로 도입한다면 기독교 신앙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불교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기 위한 수행과정이 부족하다. 기독교의 적극적인 공동체 훈련이나 신앙 생활방식을 공유한다면 기독교와의 일치와 대화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참고문헌》

- 김정빈, 마음 다루리는 법, 서울: 물병자리, 1999.
 나용화, 영성과 경건,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박석, 명상길라잡이, 서울: 도솔, 2000.
 이계학, 인격교육론, 서울: 성지사, 1991.
 정태혁, 명상의 세계, 서울: 정신세계사, 1987.
 황성기, 불교학 개론, 서울: 도서출판 아름다운 세상, 1999.
 増谷文雄, 이완섭 역, 불교개론, 현암사, 1976.
 서명석, 노장과 선가의 초월적 수양공부, 종교교육학 연구, 종교교육학 13, 2001.
 황금중, 주자의 공부론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위 박사학위 논문, 2000.
 도서출판 고요한소리 편, 새불교 원초불교, 서울: 고요한 소리, 1994.
 Dalai lama, 진우기, 신지옥 역, 깨달음의 길, 부디스트 웹 닷컴, 2006.
 Cully, Iris, *Education for Spiritual Growth*, 오성춘 외 역, 영적 성장을 위한 교육,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86.
 Easwaran, Eknath, *Meditation*, 김성균 역, 명상의 기술, 서울: 도서출판 강, 2004.
 H. M. Enomiya, & S. J. Lassalle, 이남영, 정은순 역, 선도-깨달음의 길, 분도출판사, 1984.
 Eliade, Mircea, *The Sacred & The Profane*, San Diego: Harcourt Brace Jovanovich, 1987.

- Fowler, James, *Stage of Faith*, HarperSanFrancisco: Harper Collins Publishers, 1978.
Groome, Thoms,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San Francisco: Happer & Row, 1980.
H. Westerhoff III, John,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JNew York: The Seabury Press, 1976.
H. Westerhoff III, John, & William H. Willimon, *Liturgy and Learning Through the Life Cycle*, New York: The Seabury Press.

원고접수: 2005년 5월 12일 1차심사: 6월 2일 게재승인일: 6월 10일

연구자 소개: 이재영

- ① 전공: 신학(종교교육학) / 소속: 선문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교수
 - ② 관심영역: 종교의 수행과정, 평화를 위한 교육
 - ③ 주요논저: 《심정교육론 연구》, 〈종교의식의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청소년의 죽음에 대한 의식과 종교교육〉, 〈종교 수행과정 공유를 통한 종교 간의 대화〉
 - ④ E-mail: jaeylee2@hanmail.net
-

A Study of Interreligious Communication Through Sharing Ascetic Practices

Lee, Jae Young
(SunMoon University)

《Abstract》

The problems of religious education today derive from the schooling instruction paradigm itself. The object of religious education is not simply to understand and accumulate knowledge, but to realize and act on the realization. So religious education should avoid schooling instruction paradigm and adopt a paradigm for experiential, relational, and reflective education. Such a religious education requires a praxis paradigm whereby one acts while reflecting and reflects while acting. This requirement for special religious education can be met by ascetic practices. The ascetic practice can be divided into separation phase, transition phase, and reentry phase. Religions usually have their own idiosyncratic ascetic practice, but it is also true that most religions take one of the three phases as part of their ascetic practice.

This study assumes that the object of ascetic practice is general cultivation of humanity and formation of faith community, and that different religions can share phases of ascetic practice under the general object, and finally that interreligious communication can be made possible through such shared phases of ascetic practice.

Key Word: schooling instruction paradigm, experiential/relational /reflective education, praxis, ascetic practice, cultivation of humanity